

4. (가), (나)는 현대 도덕교육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p>(㉠)은/는 도덕성의 근원이다. 도덕성은 인간의 행위를 미리 결정해 주는 용인된 규칙들의 체계로서, 이러한 규칙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 준다. 도덕성의 구성요소는 규율정신, 집단에 대한 애착, ㉡ 자율성이다. 규율정신은 도덕 규칙을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 행위자의 성향인 규칙성에 대한 선호와 (㉢)에 대한 존중을, 집단 애착은 (㉠) 집단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p>
(나)	<p>강제적 또는 타율적 단계에서 아동들이 보여주는 도덕성의 특징은 도덕적 실재주의, 객관적 책임, 내재적 정의 등이다. 협동적 또는 자율적 단계에서 아동들은 ㉢ 규칙에 대해 이전 단계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자율성, 상호 존중, 협력 등을 통해 아동들은 성인과의 관계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일방적 존중 및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즉 동년배 집단 사이에 협동을 조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들, 그리고 문화나 부모의 지나친 (㉢)의 부재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곳에서 아동들은 강제적 도덕성에서 협동의 도덕성으로 발달해 간다.</p>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가)의 입장에서 밑줄 친 ㉡의 의미를 서술할 것.
 - 밑줄 친 ㉢의 내용을 서술할 것.

5. 갑, 을은 현대 도덕 심리학자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p>도덕적 인격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도덕적 욕망, 의지력, (㉠)이다. (㉠)은/는 개인이 선택한 신념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자아감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신념들과 일치하여 유지되기를 원하는 특정한 동기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수준의 (㉠)와/과 본질적으로 연관된 도덕적 정체성은 우리가 자신의 신념, 소중한 가치, 이상과 일치화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자아감을 구성했을 때 발생한다. (㉠)은/는 우리의 다양한 목표와 고려 사항들에 위계 서열을 구성하여 인생의 방향 감각을 제공하며, 자신을 고결하고 때 묻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상태에서 ㉡ 자신의 중심 가치들과 모순되는 부정적 행동은 선택될 수 없다.</p>
을	<p>사람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구성요소 중 도덕성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적 자아를 유지하려는 욕구는 개인의 전체 자아를 보존하려는 욕구의 한 부분이 된다. 이처럼 자아의 도덕적인 요소는 전체 정체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요소에 의해 도전받는다. 사람들은 도덕적 요소와 개인에게 중요한 다른 요소가 갈등할 때,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정체성을 최적의 (㉢) 상태로 이끄는 선택이 무엇인지 따져보게 된다. 이 때 그 동안 자신이 행한 도덕적 행동의 역사에 기초하여 현재 자신의 도덕적 (㉢)을/를 계산한다. 이러한 저울질의 결과 ‘이렇게 행동해도 내가 원하는 유형의 도덕적인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 도덕적 이탈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p>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갑의 입장에서 밑줄 친 ㉡의 이유를 서술할 것.
 - 밑줄 친 ㉣과 ‘도덕적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을의 입장을 을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서술할 것.

6. 갑, 을은 동양 윤리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p>그 실질[情]을 따라가면 (㉠)하게 되기에 본성[性]이 (㉠)하다고 한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측은해 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시비를 가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측은해 하는 마음은 인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이고, 공경하는 마음은 예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이다. 인의예지는 밖에서 들여 넣은 것이 아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인데,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찾으려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고 하는 것이다.</p>
을	<p>○ 누군가는 사람의 본성이 (㉠)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본성과 (㉡)의 구분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서 배울 수 없고 이를 수 없는 것을 본성이라 하고, 배울 수 있고 이를 수 있는 것을 (㉡)(이)라 한다.</p> <p>○ 예로부터 지금까지 천하에서 말하는 (㉠)(이)란 바르고 조리 있고 평안하고 다스려지는 것이고, 악이란 치우치고 위험하고 어그러지고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와/과 악(惡)의 구분이다.</p>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갑, 을이 주장하는 수양 방법을 '본성'에 대한 주장을 적용하여 각각 서술할 것.

7. (가)는 동양 윤리 고전의 일부 내용이고, (나)의 갑, 을은 동양 윤리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p>옛날에 밝은 덕[明德]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治國],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집을 가지런히 하고[齊家], 집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몸을 닦고[修身],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正心],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뜻을 진실하게 하고[誠意], 뜻을 진실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 <u>앞에 이른다</u>[致知]. <u>앞에 이르는 것은 ㉡ 물을 격하는 것</u>[格物]에 있다.</p>
(나)	<p>갑: 모든 존재는 이기(理氣)로 설명된다. ㉢ 이(理)는 그러한 바[所以然]의 이치[理]와 그러해야 하는 바[所當然]의 이치를 형이상의 도(道)로 지칭한 개념이고, 기(氣)는 사물의 형태를 구성하는 재료를 형이하의 기(器)로 일컫는 개념이다.</p> <p>을: 맹자가 주장한 배우지 않고도 할 줄 알고[良能]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良知] 것이 ㉣ <u>마음</u>[心]의 본체이고, 이러한 마음 밖에는 물(物)도 없고 사(事)도 없고 이(理)도 없고 의(義)도 없다.</p>

<작성 방법>

○ 밑줄 친 ㉠에 대한 을의 해석을 밑줄 친 ㉡을 활용하여 서술하고, 밑줄 친 ㉢에 대한 갑의 해석을 밑줄 친 ㉣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
○ 밑줄 친 ㉠과 ㉡의 관계에 대한 갑의 주장을 '목적'을 사용하여 서술하고, 이러한 갑의 주장에 대한 을의 입장을 밑줄 친 ㉣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

8. 갑, 을은 서양 현대 윤리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p>나는 우리들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다른 동물의 종으로 확장할 것을 추구한다. 내가 말하는 평등의 기본 원리는 (㉠)의 평등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한 평등한 (㉠)은/는 서로 다른 대우와 서로 다른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평등의 원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대한 반대 논의가 궁극적으로 호소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원리이다. 그리고 종차별주의가 비난받아야 하는 것도 이 원리 때문이다.</p>
을	<p>내재적 가치(inherent value)를 가지는 존재는 모두 동등하게 그 가치를 소유하고 있고, 모두 존중받을 동등한 (㉢)을/를 가진다. 우리들 각자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 유용성을 가지는지와 무관하게 중요한 개인적 복지를 가지는 의식적 생명체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선호하고, 믿고 느끼며, 상기하고 기대한다. 또 쾌락과 고통, 즐거움과 괴로움, 만족과 좌절, 생존 혹은 죽음을 포함하는 삶의 모든 차원은 우리가 개체로서 경험하고 살아온 삶의 질에 차이를 만든다. 이것은 동물에게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성인 동물의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라고 촉구한다.</p>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을이 주장하는 도덕적 지위의 기준을 서술하고,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이 동물을 존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 이유를 밑줄 친 ㉢을 사용하여 서술할 것.

9. 갑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 을은 서양 근대 윤리 사상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p>그 밖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허용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그 나라의 통치자들로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을/를 위해서 적이나 시민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그 밖의 사람들로서는 누구든 그런 것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네. 그렇지만 사인(私人)이 통치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잘못이라고 우리는 말할 결세.</p>
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가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은 오로지 (㉡)뿐이다. ○ 정언명령은 오직 하나뿐이다. 즉, 그것은 ㉢ “_____.”는 것이다. 이제 의무의 모든 명령들이 그것들의 원리로서의 이 유일한 명령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 개념으로써 무엇을 생각하고, 이 개념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는 제시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고, 이를 활용하여 을이 거짓말을 금지하는 이유를 서술할 것.

10.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p>정의로운 사람은 자신 안의 영혼의 세 부분이 각각 제 할 일을 하게 하고, 서로 참견하지 못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정의로운 것은 이 나라 안에 있는 성향이 다른 세 부류 즉 돈벌이를 하는 부류, (㉠), 통치하는 부류가 저마다 자기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용기나 지혜는 나라의 어느 한 부분에만 있어도 되지만, 절제는 그렇지 못해서 정말로 나라 전역에 걸치는 것으로서 일종의 화성(和聲)을 닮았다. 따라서 한 개인에 있어서나 나라에 있어서 성향상 (㉡)에 대한 합의가 절제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옳다.</p>
을	<p>사람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동등함과 사물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동등함은 동일하다. 정의로운 것은 동등한 것이며, 동등한 것은 과함과 부족함의 중간이므로, 정의로운 것은 중간이다. 다시 말해 동등함은 더 많음과 더 적음 사이의 중간이며, (㉢)이 정의롭다. 서로 친구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정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서로 정의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정의의 최상의 형태는 서로를 향한 (㉤)의 태도처럼 보인다.</p>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것’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동등한 사람은 ~것’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11. 다음은 서양 현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정치권력의 행사는 헌법에 의거할 때에만 가장 적절하다. 헌법의 본질적 요소들은 (㉠)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자유주의의 원칙이다. 여기에 더해 입법부에서 제기되는 헌법의 본질적 요소들에 관계된 질문이나 정의의 기본적인 문제들 역시 가능한 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형성된 정치적 정의관만이 공적 이성과 정당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적 이성은 (㉡)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시민 사회의 ‘배경 문화’를 이루는 비공적 이성과 대비된다.
- 개인들은 공정한 사회 협력의 체계 내에서 충분한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능력은 정의감에 대한 능력과 선관(a conception of the good)에 대한 능력이다. 시민들은 이 두 가지 능력을 최소한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기본적인 도덕적 능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최소한의 관용과 상호 존중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은 상이한 신념을 가진 합당한 개인들이 판단의 합의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의미하는 (㉢)을/를 인정하고, 민주사회의 다양성이 단순한 다원주의가 아니라 ㉣ 합당한 다원주의의 세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든 시민들이 ~것’의 형식으로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의 의미를 ‘포괄적 교리’를 사용하여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